

파리서 온 경고장 “르노삼성, 경쟁력 향상 안되면 특단대책”

르노그룹, 경고 메시지 전달
“부산공장, 스페인 제조원가 2배
경쟁력 문제, 시급한 개선 필요”



르노그룹 호세 비센트 드 로스 모조스 부회장



르노그룹 본사.

르노그룹이 2020년 임단협을 두고 갈등의 폭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르노삼성자동차에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르노그룹의 제조 및 공급 총괄 임원인 호세 비센트 드 로스 모조스 부회장이 9일 르노삼성의 생존을 위해 생산 경쟁력 강화를 주문하는 영상 메시지를 부산공장 임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모조스 부회장은 “부산공장의 공장 제조원가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캡처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며 “부산공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임단협을 두고 갈등을 빚으며 파업을 예고한 노조에게 생산 경쟁력 강화와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그는 “지난해 부산공장을 방문했을

때, 부산공장은 뉴 아르카나(XM3 수출 차량)의 유럽 수출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고 약속했다”며 “그 약속을 믿고 르노그룹 최고 경영진들을 설득하여 뉴 아르카나 유럽 물량의 부산공장 생산을 결정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지난해 말 기준으로 그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으며, 부산공장의 공장 제조원가는 스페인에서 생산되는 캡처

와 비교하면 두 배에 달한다”며 “이는 부산공장의 경쟁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며,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XM3의 성공적인 유럽 진출을 위해 ▲최고의 품질 ▲생산 비용 절감 ▲생산 납기 준수 등 세 가지 목표를 달성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부산공장은 거리적 한계로 인해 높은 운송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

다”며 “그러나 공장제조원가가 유럽 공장의 두 배이고 여기에 운송비까지 추가되는 상황이라면 한국에서 차량을 생산해 유럽으로 전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산공장은 스페인에서 만드는 캡처와 동일한 수준의 공장제조원가로 뉴 아르카나를 생산해 유럽 시장에 출시해야 하며 이는 부산공장이 준수해야 할 책임”이라며 “부산공장은 안정적인

생산과 납기를 통해 유럽 시장 판매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모조스 부회장은 최근 르노삼성의 노사 갈등과 관련해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음을 언급했다. 그는 “여러분들은 현재 르노삼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고, 부산공장의 서바이벌플랜과 전략은 스스로를 위한 최우선적 생존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수요 대비 공급의 과잉 투자 환경에서 경쟁력이 향상되지 않으면 미래에 어려움을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부산공장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르노그룹은 지난달 경쟁력 강화를 위해 수익성을 중심으로 경영 전략을 전환하는 ‘르놀루션’ 전략을 발표하고, 한국을 라틴 아메리카, 인도와 함께 수익성을 강화해야 하는 지역으로 지정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카카오, 작년 매출 4조1567억 ‘사상 최대’

2020년 실적 발표

연간 영업이익 4560억 기록
모빌리티·페이 신사업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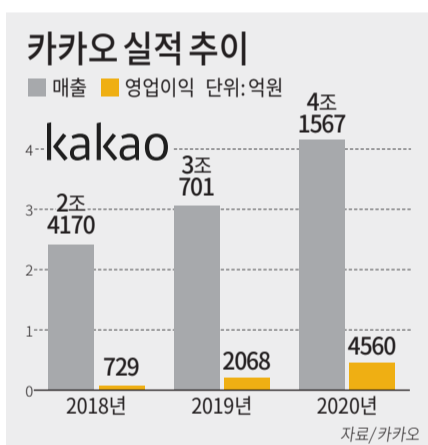
카카오가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카카오는 K-IFRS(한국국제회계기준) 기준 2020년 연간 매출이 전년 대비 35% 늘어난 4조1567억원을 기록했다고 9일 밝혔다. 연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121% 증가한 4560억원으로, 영업이익률은 11%다.

지난해 4분기 연결 매출은 전분기 대비 12%,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한 1조2351억원이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25%, 전년 동기 대비 88% 성장한 1498억원을 기록했다.

카카오의 지난해 4분기 플랫폼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19%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8% 증가한 6570억원으로 집계됐다.

특비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27%, 전년 동기 대비 63% 증가한 3603억원이



다. 포털비즈 매출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색 광고 매출이 감소해 전분기 대비 1% 증가,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한 1227억 원을 기록했다. 신사업 부문 매출은 카카모빌리티 택시 플랫폼 사업의 매출 확대 및 카카오페이의 결제 거래액과 금융 서비스 확대로 전분기 대비 17%, 전년 동기 대비 97% 증가한 1740억원이다.

콘텐츠 부문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증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5781

억원을 기록했다. 유료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10% 늘었으며, 카카오페이의 K-IFRS 적용에 따른 기저효과로 전년 동기 대비 233% 성장한 1636억원을 기록했다.

게임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 대비 6% 감소, 전년 동기 대비 33% 성장한 1408억원을 달성했다. 뮤직 콘텐츠 매출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인 1551억원을 기록했다.

IP 비즈니스 기타 매출은 카카오M의 드라마, 오리지널 콘텐츠 등의 영상 콘텐츠 매출 증가와 음반 유통 호조로 전분기 대비 30%,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한 1186억원이다.

2020년 연간 영업비용은 전년 대비 29% 증가한 3조7007억원이다. 4분기 연결 영업 비용은 전분기 대비 11%,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1조852억원으로, 연결 종속회사 편입과 신규 개발 인력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 마케팅 비용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

/구서윤 기자 yuni2514@

현대차·기아, 상용차도 친환경車 앞세운다

기아, 봉고 III EV 특장차 판매

현대차·기아가 상용차 시장에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현대차가 친환경 소형 트럭 포터 II 일렉트릭을 출시한데 이어 기아는 봉고 III EV 특장차의 판매에 나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성능을 대폭 강화한 봉고 III EV 특장차의 판매를 시작한다. 봉고 III EV ▲내장탑차(저상형/표준형/플러스형) ▲과워게이트 ▲윈바디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김밥 기반의 특장 모델이다. 봉고 III EV 특장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등판 능력이 우수하며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저상형 내장탑차는 지하 주차장(높이 2.3m 기준) 출입이 가능하며 표준형/플러스형 내장탑차는 각각 1580mm, 1810mm의 화물실 높이를 갖춰 많은 양의 화물 적재가 용이하다. 화물실 측면을 날개처럼 열 수 있는 윈바디 모델은 측면 도어 개방 시 화물실의 개방감이 우수해 화물을 싣고 내리는 것이 편리하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4일 친환경 소형 트럭 포터 II 일렉트릭 판매에 나섰다. 포터 II 일렉트릭 ▲내장탑차(하이·일반·저상) ▲과워게이트 ▲윈바디는 지난 2019년 12월 출시한 포터 II 일렉트릭 초장축 슈퍼캡 기반의 특장 모델로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했으며 1회 충전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양성운 기자

현대제철 극저온 후판 개발... 수익성 개선 기대

강종 개발... LNG 추진선에 공급
극저온 환경에도 뛰어난 내성

현대제철이 극저온에도 견딜 수 있는 강종을 신규 개발해 이를 LNG(액화천연가스)추진선에 공급한다. 국내 조선업계가 LNG선 수주를 늘리는 만큼 현대제철에도 수익성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현대제철은 지난 2월 5일 현대중공업이 건조 중인 LNG추진 컨테이너선 연료탱크용 소재에 대한 수주계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계약은 연료

탱크용 소재는 지난해 12월 개발을 완료한 9% Ni(니켈) 후판이다.

현대제철이 개발한 9% Ni 후판은 극저온 환경(영하 196℃)에서도 충격에 대한 내성이 뛰어나고 용접성능이 우수해 LNG 연료탱크 등에 사용되는 초고 성능 강재이다.

LNG는 기존 선박용 디젤에 비해 오염물질 배출이 현저히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저장시설 내부를 영하 165℃ 아래로 유지해야 하는 등의 기술적 제한이 따른다.

현대제철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9%

Ni 후판 신강종에 대한 개발에 착수해 R&D 역량을 집중한 결과 지난해 3월 안정적인 품질 수준을 확보했다. 이어 12월에는 KR(한국), ABS(미국), DNV GL(노르웨이/독일) 등 국내외 주요 9대 선급인증을 모두 획득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현대중공업의 고객사 평가까지 모두 완료하며 수주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

이번에 계약된 수주 물량은 LNG추진 초대형 컨테이너선 2척분이다. 현대제철은 이번 수주를 시작으로 LNG추진선 연료탱크에 대한 추가 수주는 물론 LNG 플랜트와 LNG 터미널에 쓰이는 육상용 저장탱크 수주에도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LG CNS, AI 영어교육서비스 학회서 인정

한국영어교육학회 최초 인증

LG CNS의 AI 영어교육서비스가 효과성을 입증 받았다.

LG CNS는 AI 영어교육서비스인 ‘AI튜터’와 ‘AI토익스피킹’이 한국영어교육학회(KATE) 인증을 받았다고 9일 밝혔다. AI 기반의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한국영어교육학회 인증을 받은 것은 국내서 이번이 처음이다.

LG CNS AI 기반 영어교육서비스는 AI와 학습자간의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가능하고, 실제 영어 말하기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받았다.

AI튜터는 수십 만개의 영어 문장을 학습했다. AI는 학습자와의 대화를 통해 답변내용, 맥락, 유창성, 필수단어 등 영어 말하기 능력을 분석한다. 학습자 스스로 완성된 문장을 말할 수 있고



LG CNS가 AI 기반 영어교육서비스 AI튜터, AI토익스피킹으로 한국영어교육학회 인증을 획득했다.

/LG CNS

록 유도하고, 영어 실력을 점차 향상시켜 나간다.

AI토익스피킹은 ‘사진 묘사하기’, ‘의견 제시하기’ 등 토익스피킹 파트1~6 내용을 AI와 학습하는 서비스다. AI는 수험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현재의 토익스피킹 레벨 수준을 분석한다. AI의 분석데이터에 따라 목표 레벨을 설정하고 학습을 시작한다.

/구서윤 기자